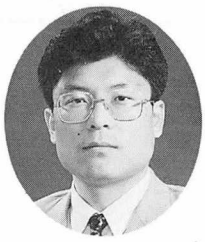
혹서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노하우



임 선 재
(서정가축약품상사)

1. 혹서기 수태율 향상을 위한 노하우

혹서로 인한 모돈 사료섭취량의 감소 현상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이며 모돈이 지치거나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미경산돈의 지방부착이 너무 엷거나 할 경우 열량감소로 배란, 발정, 수정에 영향을 미치며 수퇘지의 정액에도 영향을 미쳐 고온 3일후에는 수정관속에서 사멸해 버린다.

온도가 30℃를 초과할 경우 수퇘지 승가욕은 감퇴하며, 28℃를 초과할 경우 사료섭취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가 최저 상태인 늦은 저녁 또는 새벽 교배가 권장된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막은 혹서기에 절대 필요하며 이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돈방 사육에서 공기를 식히는 것이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공기흐름이 안 좋아지므로 모돈의 체온을 내리는 것이 곤란해져 반드시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돈의 머리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거나 분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광(光)주기가 수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들면 광주기가 짧아질 때에 수태에 대한 호르몬 분비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온도, 일조시간, 동물의 본능과 스트레스 유발의 확실한 자극이 있을 경우 모돈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번식능력은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수퇘지가 교배시 안정되지 못하면 따뜻한 애정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군에서의 교배는 수퇘지의 기분상태에서"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약리작용에 의한 수태율 향상

지난 여름 우리 양돈업 종사자들은 40℃를 웃도는 폭서로 많은 피해(폐사, 성장저하, 번식능력저하)를 뼈아프게 경험하였다. 실제 32℃ 이상의 외기(外氣)에 노출된 돼지는 정액의 품질저하 즉, 정액량의 감소, 정자수의 감소, 기형정자 증가, 정자활력 저하 등의 피해로 인해 모돈 수태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온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적어도 4주~6주, 길게는 3개월간 지속이 된다.

실제 작년의 폭염은 9월말까지 지속되었으며 수태율 저하 및 공태 모돈의 발생은 12월까지 상당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위 사실을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숫놈 정액의 품질향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약리작용에 의한 수태율 향상 방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음수처치

식욕촉진, 대사촉진제+전해질, 비타민공급+숫놈 정액생산 및 번식능력 강화제(비타민E+SE)

2) 주사처치

이담소화촉진제+종돈 면역 활력 보조제(비타민AD3E)

3) 사료

식욕촉진, 대사촉진제+비타민 강화 공급+설사, 장염, 호흡기 예방치료

3. 정액성상 향상방법

1) 비타민E와 셀레늄이 정자질에 중요한 역할

최근 연구 자료에서 셀레늄이 숫놈 정자의 운동성 및 활력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때 토코페롤(비타민E)를 같이 급여시 정자 활력도 및 정액성상을 더 높인다고 한다. 셀레늄 결핍시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정액량 감소, 정자기형이 증가한다.

비타민E와 셀레늄 동시 급여시 정자 운동성 증가, 정자기형 감소 등으로 인해 정액의 성상이 아주 좋아져 정자의 수정 능력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절기 고온(특히 30℃ 이상) 환경에서 사용시 더욱 효과적이다.

2) HEAT STRESS의 증상

- 모돈

  임 신 돈 : 사료섭취량 격감 및 유산발생

  분 만 돈 : 분만 2~5일전에 임신모돈은 사고사로 죽는 경우 다발

  포유모돈 : 사료섭취량 격감 및 이로 인한 유질의 이상으로 자돈설사 초래

  이유모돈 : 무발정, 둔성발정 및 발정지연

- 웅돈

  섭취량 떨어지고 승가 거부현상이 자주 나타남. 정액량 감소, 정자수 감소, 정자활력 감소